

은혜와 진리소식

2025년 11월 9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47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나의 구주이시며 인생 여정의
고삐길마다 힘이 되어주시는
주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영광 돌립니다.”

- 이 길 자 -

저는 1980년 12월에 옆집 구역장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커가면서, 열심히 구역을 돌보고 사람들을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에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므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한편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2009년 봄에, 변창하던 남편의 사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남편이 매우 신뢰하던 사람으로 인해서 사기를 당하고 하루아침에 사업체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일순간 모든 재산을 잃고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반지하 집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제게 “어떻게 사세요? 힘드시죠?”라고 물으면 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그동안 잘 살았으니 어렵게도 살아봐야지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근로장학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에 다니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사들이 말하기를 ‘앞으로 일주일 아이들의 생사를 가르는 고비이며, 살아도 오랫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새벽에 병원에 있는 예배실에서 홀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 중에 놀랍게도 제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들의 생사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였습니다.

그 후 사고를 당한지 18일째 되던 날에 아들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이어서 집중치료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지며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중추신경을 다쳐서 단기 기억장애와 왼쪽 마비증세가 있었지만 그래도 무척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8개 외과의 교수님 여덟 분이 아들의 수술과 치료를 담당하셨고, 아들은 12번의 수술을 받은 후에 재활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재활전문병원으로 옮겨 9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하였습니다. 집에 와서도 계속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혼자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연습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경제적인 수입이 없고 통장에 남은 돈이 없었지만 저는 크게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면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말씀을 꼭 붙들고 감사함과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가 필요할 때에 생각지도 않은 지인 등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씩 채워 주셨습니다. 아들의 병원비도 시에서 의료급여2종의 혜택을 받게 해주어서 어렵지 않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반지하 집에서 생활한지 3년이 되자 저는 환경이 더 나은 집에서 살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지상에 있는 집 밝은 거실에서 구역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복지센터로부터 LH임대주택에 입주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의 소망이 이루어져 저의 집에서 구역장기도회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어난 적이 없는 제가 처음으로 밖에 나가 일을 할 결심을 하고, 교구 전도사님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딱 6개월만 직장에 다니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일을 하다 보니 무척 재미있고 좋아서 약속과 다르게 계속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허리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조퇴를 하고 병원에 갔더니 3개월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실업급여를 타면서 근무한 날짜를 계산해보니 정확하게 180일, 6개월이

였습니다. 그래서 미련을 버리고 전도사님에게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섬리하심에 감탄하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 몇 달 후에 복음지를 들고 여러 집을 돌며 전도하던 중에 또 주인세대의 넓고 쾌적한 집으로 이사를 가서 살고 싶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넓은 집에서 성도님들과 편안하게 구역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저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아시고 도와 주셨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주인세대의 집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저는 또 새로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전에 저희 가족이 오랫동안 살았던 동네에 가서 한 아파트를 바라보며, ‘이런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과연 우리가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 언제쯤 가능할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삶이 안정되고 직장에 다니게 되어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몇 차례 진행된 재판에서 사기를 당하여 진 빚도 다 면책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파트에 들어가 살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한지 채 한 달이 안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우리, 아파트로 이사갈까?”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면서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서 그날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며칠 뒤 남편이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반신반의하며 어디냐고 물었는데, 제가 입주를 꿈꾸었던 바로 그 아파트였습니다.

이 아파트에 입주한 3년 후, 저희 부부는 아들을 위해 어르신들을 돌보는 ‘주야간 보호센터’를 열었습니다. 아들이 센터의 책임자로 일하면서, 수요일에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분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신앙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저의 인생 여정에서 어렵고 힘든 고비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송하며 영광돌립니다. 고난이 유익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에서 봉사하는 생활을 하게 해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오직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변함없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끝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며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은혜와 진리교회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진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 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다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종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 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 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 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 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남로 41번길 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 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 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 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 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 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은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구역공과 제3권 (제4단원 :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제23과)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 **본문** : 히브리서 10:1-18
- **요절** :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히 10:10)
- **찬송** : 찬송가 194장(새찬송가 260장), 찬송가 487장(새찬송가 369장)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이 직접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없었으며, 율법에 명하신 대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었습니다. 또 매년 한차례씩 대속죄일이 되면 온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렸는데, 이 때에도 대제사장이 온 백성을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로써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 16:29~34).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의 중보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법은 속죄의 효험에 있어서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 스스로가 속죄 제사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인간들이었으며(히 7:27), 또 속죄 제물로 쓰였던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습니다.(히 10:4)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날마다 제물로써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이 매년마다 온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했던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신약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죄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였습니다.(히 8:5)

1.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라고 증거하였고, 예수님 자신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몸소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이 되심과 동시에 그 자신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려 주셨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히 9:24)

이는 성경에 기록된 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히 9:11~14)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히 10:18)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중보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제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 17:9~11).

예수님의 이러한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롯하여 시험에 들었던 제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히 4:14) 하였고, 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롬 8:33~34)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므로 우리는 사단의 참소를 두려워 않고 날마다 이기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의 안마당까지 들어갈 수 있었으며, 제사장은 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 있는 곳으로 오직 대제사장만 일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서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규례를 어기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일지라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운명하시자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마 27:51)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담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무너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히 10:19~20)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로써 성도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므로(벧전 2:9)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기쁨으로 섬길 뿐 아니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간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서는 자기의 보혈을 흘려 우리의 속죄를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범사에 그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